

완도, 해조류 기반 ‘해양바이오산업’ 거점 구축

군, 전국단위 해조류 바이오 소재 공급 기지 조성

신우철 군수 “시설·기업 유치…미래 성장 동력화”

완도군이 해조류를 기반으로 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완도군에 따르면 원물 생산 중심에 머무르고 있는 해조류산업을 확장해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조류 등 해양 생명자원에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해 식품·의약·화학·에너지·자원 분야의 고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해양바이오산업 글로벌 시장은 2023년 72억달러(약 10조원)에서 2030년 128억달러(약 18조원)로 연평균 8.5%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해조류 기반 시장은 연평균 성장을 10.5%로 해양바이오산업 전체 성장률보다 고성장이 예상된다.

정부도 ‘미래로 나아가는 역동적 해양산



업’이라는 계획을 제시하며 완도를 해조류 특화 산업 거점으로 육성 중이다.

군에는 전남해양수산과학원(수산종자 연구소), 전남바이오진흥원(해양바이오 본부),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등 연구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수년간 국고 건의와 공모 사업 유치 등을 통해 산업 토대를 마련하는데 박차를 기했다.

그 결과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2023년 준공), 해양 헬스케어 유효성 실증 센터(2023년 개소),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 회장품 시제품 생산 라인(2023년 구축)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에는 현재 26개 기업이 입주해 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진행 중이다.

이 중 쥐이노플러스는 해조류 부산물로 화장품을 개발해 국내 백화점과 미국

·두바이 등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선대학교가 운영하는 해양 헬스케어 유효성 실증 센터는 해조류 유전체 등록(39건), 특허·지식재산권(37건), 시제품 개발(13건) 등의 기업 지원 성과를 내고 있다.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는 전남 유일의 화장품 시제품 생산 라인을 구축해 중소기업들의 제품 개발을 돋고 있다.

해조류 활성 소재 인증·생산 시설(2026년 준공 예정), 해조류 바이오スマ트 팩토리(설계비 확보) 등 대규모 시설

건립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해양바이오 기업 유치와 정주여건 개선

을 위해 공공 주택도 건립할 예정이다. 시설들이 완공되면 기업이 요구하는 표준화된 고기능성 해조류 원물 제공은 물론 해조류 소재 출·대량 생산 지원까지 이뤄져 완도가 전국 단위 해조류 바이오 소재 공급 기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군수는 “해조류 중심의 해양바이오산업은 군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시설 완공과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완도를 해양바이오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도=김혜국 기자 knk1831@

진도, 귀농어귀촌인 지원 사업 보조금·융자 28일까지 접수

진도군은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과 ‘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을 대상으로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정착 지원, 청장년 창농 지원, 영농어자재 지원, 이사비용 지원 등 6개 사업에서 51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융자 지원사업은 ‘귀농귀여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연 1.5~2%의 저금리로 농어업 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 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이번 사업에 신청한 희망하는 귀농어귀촌인은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여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한글 배우러 왔어요” 강진군이 여성농민의 배움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최근 강진 신천마을에서 제18회 찾아가는 여성농민 한글학교 입학식을 개최했다. 한글학교는 교육 접근성이 낮은 노령의 여성농민과 다문화 이주 여성들을 위해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한글 교육 프로그램으로, 읽고 쓰는 기초 문해 능력 향상은 물론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 교육을 병행하며, 신천마을을 포함해 총 18개 마을 경로당

사진제공=강진군

해남, 저소득층 자립·탈수급 지원 나선다

희망저축계좌, 매월 10만원 저축…3년 후 1440만원+이자

해남군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 가구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3년간 본인 저축액에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3년간 근로 활동을 하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1년차 매월 10만원, 2년차 매월 20만원, 3년차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탈수급 시 최대 저축액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받는다.

모집기간은 2월 2~24일, 7월 1~27일,

10월 1~26일 모두 3회에 걸쳐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희망저축계좌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스스로 자산을 형성하며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며 “근로 의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8239@gwangnam.co.kr

무안,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지자체 선정

특교세 3억7000만원 확보…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

무안군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 한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7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상품권 할인율을 17%

(국비 12%, 군비 5%)로 상향 조정하

고, 지역 하나로마트 8곳을 상품권 사

용처로 추가 지정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분야에서도 지급 실적과

사용처 확대 신청·지급 절차개선 노력 등을 인정받아 1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

강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

강진군은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2026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16가구로, 총사업비 6080만원을 투입해 기구당 최대 38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주택 내 단차 제거, 문폭 확대,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 조절, 일부 외부시설 등 주거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가구 중 적합한 주택 및 대상자에 대해 상담과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후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